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비**

**합격으로 가는 마중물**  
**GUIDE BOOK**

**전공국어 구동언**



## 목 차

01. 짧게 소개합니다.
02. 질문에 답해 보세요.
03. 최근의 국어 교사 모집 및 지원 현황을 봅니다.
04. 최근 임용시험의 특징입니다.
05.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06. 이번 기출문제에 대한 논평입니다.
07. 이메일과 카페를 소개합니다.
08. 2022년 연간강의를 안내합니다.

## 01. 짧게 소개합니다.

### ‘지금, 여기’ 깨어있는 국어교육

안녕하세요. 구동언입니다.

저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부터 노량진에서 중등교사임용시험 전공 국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의 매일 코피를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어둠을 뚫고 공부하러 가면서 혼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 선생님, 축하합니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소극적인 태도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 2차 면접 때, 세 분의 면접관 중 한 분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드넓은 운동장에 혼자 버려진 듯 외로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불합격 소식을 들은 후, 홀로 철길을 걸으면서 세찬 겨울바람을 핑계 삼아 흘렀던 눈물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반드시 교단에 서리라 다짐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첫 담임 때의 학부모 모임을 기억합니다. 풋풋한 젊은 교사에게 아이의 미래를 논하던 그 시절 학부모들이 저를 지금에 이르게끔 성장시켰습니다.

대입 재수 학원에서 담임을 하면서 국어와 논술을 강의하였습니다. 수능을 친 학생들과 대입 전략을 짜던 어느 날, 우연히 임용학원에서 전공 국어를 강의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된 이래로 갖은 고생을 하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임용시험을 공부한 흔적을 그대로 밟아서인지 이 강의가 낯설지는 않았습다. 첫째 제 수업을 듣겠다고 왔었던 여러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잘 되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인연을 맺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어떤 바람의 크기를 가지고 있건 그 무게의 엄중함을 무겁게 느낍니다. 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제 신조는 이렇습니다. “참된 것만이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나는 내가 선 “지금, 여기(now & here)”에서 “깨어있는 국어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고시학원. 희소고시학원. 아모르임용학원, 임용단기에서 강의했었습니다. 지금은 ‘월비스임용학원’에서 옛 영광을 다시 누리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의 어느 날.

북한산의 기상을 닮고 싶고 한강의 유연함을 닮고 싶은.

구동언

## 02. 질문에 답해 보세요.

### 1) 교사/국어 교사

※ 다음의 것들에 답해 보세요.

- ① 왜 교사가 되려 합니까? 교사가 되려는 이유는 분명합니까?
- ② 교직원(철학)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③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④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특히 국어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⑤ 왜 국어 교사입니까? 다른 교과 교사와 다른 국어 교사의 특수성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⑥ 내 삶에서 롤모델(role model)이 되는 교사 또는 국어 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⑦ 교단에 섰을 때, 국어 교사로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 ⑧ 나만의 국어 교사상이 있습니까?
- ⑨ 국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왜 국어를 공부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등

### 2) 교사임용시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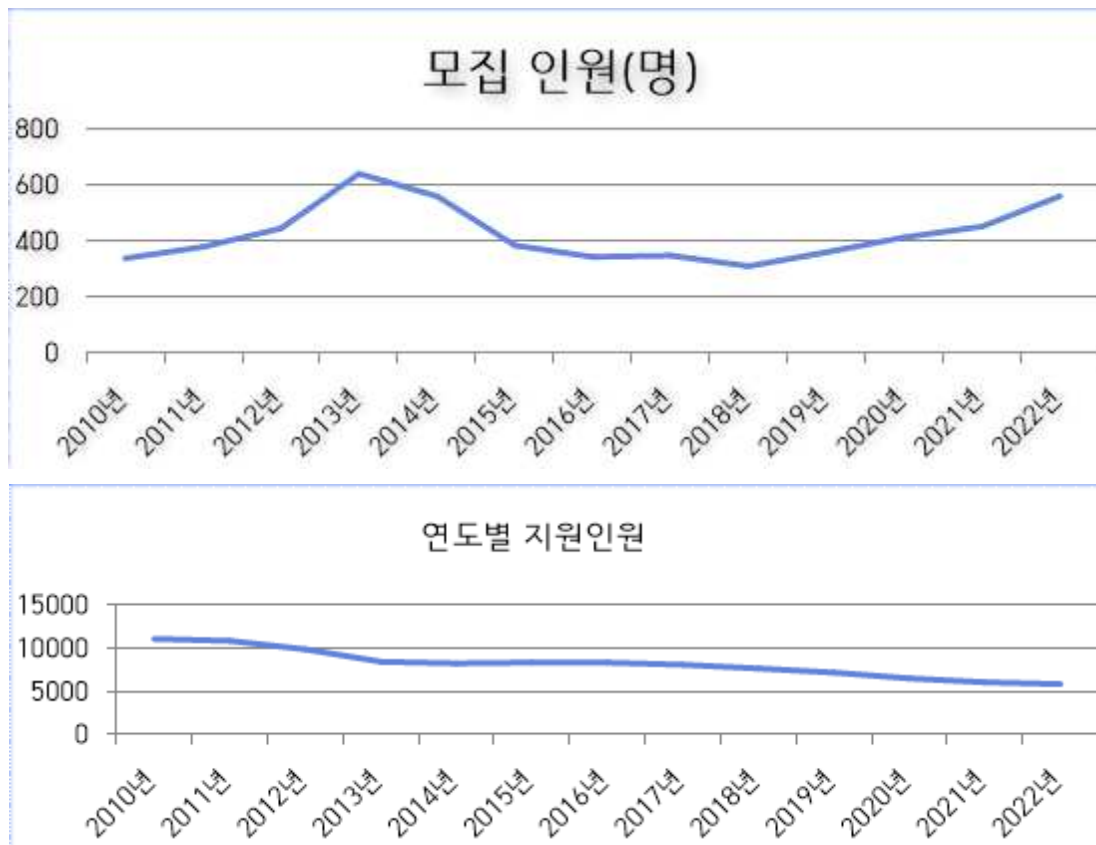
※ 다음의 것들에 답해 보세요.

- ①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의 기조는 확고합니까?
- ② 교사임용시험이 어떤 성격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③ 기출문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④ 이번 기출문제를 풀어 보았습니까?
- ⑤ 몇 년 준비하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⑥ 오늘부터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⑦ 함께 공부할 사람은 있습니까?
- ⑧ 공부할 최적의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⑨ 전공 국어는 어떤 영역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⑩ 전공 국어 각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어떤 책을 준비해야 합니까?
- ⑪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입니까?
- ⑫ 힘들거나 지칠 때 이겨낼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⑬ 임용시험과 전공 또는 교육학 공부와 관련한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등

※ 이상의 것들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길을 찾는 방법입니다.

### 03. 최근의 국어 교사 모집 및 지원 현황을 봅니다.

연도	모집 인원(명)	지원 인원(명)	경쟁률	비고
2010년	339	11,120	32.81	
2011년	380	10,891	28.67	
2012년	446	9,911	22.23	
2013년	641	8,475	13.22	
2014년	561	8,281	16.05	
2015년	385	8,375	21.75	
2016년	344	8,362	24.3	
2017년	349	8,123	25.07	
2018년	311	7,692	28.97	서울 35.8:1 경기 26.1:1
2019년	361	7,215	19.99	서울 19.81:1 경기 17.45:1
2020년	414	6,539	15.79	서울 20.34:1 경기 13.94:1
2021년	453	6,089	13.38	서울 20.51:1 경기 9.96:1
2022년	561	5,869	10.46	서울 11.92:1 경기 8.80:1



상대적으로 지원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모집 인원은 근래에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경쟁률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단, 위의 자료는 ‘사립학교 지원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임.)

## 04. 최근 임용시험의 특징입니다.

### 1) 1차의 문제 지형이 깨지다.

지난 몇 년간-적어도 서답형 체제하의 전공 국어는 확실히 ‘쉬운 문제 지형’이 기초였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래의 경향을 보면, 2019학년도 문제는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형식의 틀에 기댄 공부에 얼마나 자유로운 사고를 막게 하는 어리석은 방식의 공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문제였습니다. 2020학년도 문제는 시험의 내적 체제가 바뀐 상태에서 치러진 첫해였습니다. 이전에 있던 ‘논술형’이 없어지고 ‘기입형’은 비중이 줄었고, ‘서술형’ 문항이 늘어 ‘서술형’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당시 시험 결과, ‘기입형’은 개론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출제되었고, ‘서술형’은 다양한 유형의 틀을 가지고 다양한 실제적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유형은 2021학년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 2)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2차 비중이 강화되다.

국어 교사는 국어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학습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후자에 대한 능력 검증은 2차 비중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국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어 교사로서의 지식, 기능,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중등학교 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 능력과 수업에 대한 철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2차 ‘수업 실연(수업 나눔)’과 ‘심층 면접’입니다.(물론 지역별로 2차 전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사 양성과정에서 제대로 수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수험생이 대부분입니다. 2차 비중 강화는 기준점을 낮추면서(80점→60점) 1차 성적 결과를 무력화시킨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왜 험난한지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3) 1차는 서술형 중심의 문항으로 재편되다.

서답형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지필 평가는 변별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입형과 논술형은 변별력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는 서술형 비중을 늘리고 기입형과 논술형의 문항수와 배점을 줄였습니다. 이는 다음의 <참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2020학년도)부터는 기입형이 줄고, 논술형은 없어졌으며, 서술형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서술형의 변별력이 가장 높았는데, 기입형을 통해 전공 지식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면서 서술형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을 판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참고>

※ 1차 필기시험 문항 유형 및 문항 수, 배점

변 경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재까지)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 수	배점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전 공	전 공 A	2교시 (90분)	기입형	4문항	8점	40점
			서술형	8문항	32점	
	전 공 B	3교시 (90분)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합계				24문항	100점(교육학+전공)	

※ 2023학년도 1차 전공 국어 필기시험 영역별 문항 수와 배점

전공 국어 영역별 문항 수(배점)					
대영역	세부 영역		문항 수	배점	
교육론	화법		2	8	24점
	독서		2	8	
	작문		3	8	
문법	현대문법	말소리	1	4	24점
		단어	3	8	
		문장	1	4	
	중세문법		2	8	
문학	현대문학	현대시	3	8	32점
		현대소설	2	8	
	고전문학	고전시가	2	8	
		고전산문	2	8	
합			23문항	80점	



#### 4) 기탁

지필평가의 경우 암기해서 풀어야 하는 지식을 확인하기보다는 다양한 맥락(과 조건)을 제공하여 문제를 추론하고 탐구해서 답을 찾아내게 하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은 이미 양성 과정에서 충분히 습득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지식이 맥락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듯이 교사도 충분히 학생과 같은 문제 해결력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수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필평가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문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항 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 출제를 어렵게 합니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고, 출제 근거 또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출제위원이 개발한 문항을 검토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하고 나면, 몇 문항은 구석에서 나오게 마련이고 그런 문항으로 인해 수험생은 임용시험 지필 평가가 어렵다 합니다. 2018년의 시험은 특히 더했습니다. 2019년의 시험은 내적 체제의 변화로 서술형이 17문항이 되면서 끊임없이 써 내야 하는 부담을 누구나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써내는' 서술 양식은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만약에 꾸준히 손으로 써내는 연습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굉장한 난제가 될 것입니다.

근래에는 기존의 지필평가 양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론-문법-문학'의 순으로 출제되는 양식의 변화와, 영역별 문항수의 변화, 배점의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존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장에서는 분명 큰 변화로 느낄 만한 사안입니다.

첨언합니다.

전공 국어 교사 임용시험에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은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히 개론서부터 꾸준히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교육론, 문법, 문학 모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임고생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공부하지만, 실제 그 교재에 문제가 많습니다. 때문에 원전에 해당하는 개론서 읽기에서 전공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문학 작품을 꾸준히 읽고 정리해야 합니다. 시와 소설, 고전문학의 운문과 산문을 두루 읽어야 합니다. 10개월의 짧은 기간, 누가 체계적으로 작품을 읽어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공부할 분량이 많은 까닭에 작품 읽기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문학 작품 이해 문항은 암기한 사실만을 서술해야 하는, 어리석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소에 손글씨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마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지금의 '서술형' 중심 체제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손글씨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 실수하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긴 호흡으로 꾸준히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05.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암기는 최대의 적입니다.

‘서술형’ 중심의 문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서술형’은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조건(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암기해서 답을 써야 하는 문항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론은 ‘조건’에 맞게 텍스트를 맥락적으로 추론해서 해당 지식을 적용해야 하고, 문법은 예문을 분석하고 탐구해서 문법적 지식을 서술해야 하며, 문학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우선해야 합니다.

### 2) ‘숲’을 본 후에 ‘나무’를 봐야 합니다.

책에는 목차가 있듯이 교육론이나 문법, 그리고 문학을 공부할 때도 목차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쓰기(작문)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쓰기 이론이 나왔고 그것은 어떤 모형으로 관습화 되었는지 파악해야지 막연히 기능이며 전략부터 외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숲’을 본다는 것은 영역별 이론의 기준을 이해하는 일이며, ‘나무’를 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 3) ‘지식’은 ‘실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국어과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추상적인 지식의 나열입니다. 만약에 이를 ‘지식’으로 알고자 한다면 암기가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묻는 문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출제 범위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구체화시켜 펼쳐놓은 교과서(교사용지도서)를 봐야 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해야 할 성취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과서(교사용지도서)를 봐야 하는 이유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에 맞게 펼쳐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2차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차 시험 결과가 발표 난 후, 단 2주 또는 3주 동안 2차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과서(교사용지도서)를 봐야 지필 평가에서 중시하는 맥락적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관련 교과서를 망라합니다.

### 4)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다시 ‘기출’됩니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미 개발원과 평가원 주관 문제만으로도 임용시험은 문제 은행 식의 내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평가의 각 선택지가 서술형의 발문이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내서 자신만의 답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는 가장 정련되고, 수준 있는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의 문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또 반드시 스스로 답을 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험장에 자료 하나만 들고 간다면, 그것은 바로 ‘기출문제’여야 합니다.

### 5) ‘지금 & 여기’에 맞게 ‘함께’해야 합니다.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목표를 인지한 사람은 목표로 향한 길을 언제나 응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 여기’에 맞게 공부하고 또 충실합니다. 지금 걷는 잔걸음이 원대한 꿈을 이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한 길에 파트너는 필수입니다.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부 정도를 점검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지만, 일정한 거리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와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함께 하는 가운데 극복됩니다.

1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인생의 골곡을 다 느껴가며 고독하게 달려가야 하는 길입니다. 동료는 그 길을 함께 달리면서 응원해 줍니다.

## 06. 이번 기출문제에 대한 논평입니다.

선생님, 고생 많았습니다.

매년 지필 평가가 끝난 시점에는 고생한 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까이 있다면 어깨라도 토닥토닥 두드려 드리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 소용되었습니까만 노고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뜻에서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우리는 ‘꿈’, ‘용기’, ‘노력’, ‘열정’, ‘사랑’ 등과 같은 단어들을 굉장히 쉽게 내던집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갈채를 보냅니다. 노력 없이 결과도 없다. 열정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내던지는 말은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행하는 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에서 선생님이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과정을 잘 거처온 자신을 푸근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면서 마음 한 곳에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을 느낄 것이 아니라 잠시 쉬면서 조심스럽게 남은 일정을 챙기며 준비해야 합니다. 교단에 서고자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의 하나가 바로, 힘들겠지만, 시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며, 또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번호	대영역	소영역	내용/세부 내용	배점
A형	1	교육론	작문	표현단계의 초고쓰기/전략	2점
	2	문법	단어	형태소 결합/모음의 어울림	2점
	3	문학	현대시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	2점
	4	문학	현대시	<사슴>(노천명)	2점
	5	문법	문장	고쳐쓰기/부정확한 표현	4점
	6	교육론	화법	토의/해결안이 갖출 구성 요건, 해결안 검토	4점
	7	교육론	독서	독서 기능, 독서 태도	4점
	8	문법	말소리	음소 층위의 음운 변동, 음운론적 제약	4점
	9	문법	중세국어	객체 높임 언어말 어미의 교체와 표기법	4점
	10	문학	고전시가	<하여가>(이방원), <단심가>(정몽주)	4점
	11	문학	고전산문	<서대주전(한문본)>(작자 미상)	4점
	12	문학	현대소설	<유예>(오상원)	4점
B형	1	교육론	작문	Scardamalia & Bereite, 지식 변형 모형과 지식 나열 모형	2점
	2	문법	단어	복합어의 구성/의미 구성 요소	2점
	3	교육론	화법	면접/답변 전략	4점
	4	문법	중세국어	중세국어 음절의 특성/초성의 겹자음	4점
	5	교육론	작문	작문 이론, 작문 단계	4점
	6	교육론	독서	인터넷 문서 읽기	4점
	7	문학	현대시	<공사장 끝예>(이시영), <비망록>(문정희)	4점
	8	문학	고전산문	<온달전>('삼국사기' 열전)	4점
	9	문학	고전시가	<성산별곡>(정철)	4점
	10	문법	단어	명사형 어미 '-기'	4점
	11	문학	현대소설	<제1과 제1장>(이무영)	4점

<표1> 문항별 영역, 유형, 세부 내용, 배점

‘교육론 : 문법 : 문학’이 정확하게 ‘30 : 30 : 4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론은 ‘화법, 독서, 작문’의 배점이 동일합니다. 문법은 ‘현대국어 : 중세국어’가 배점 기준으로 ‘2 : 1’입니다.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정확하게 같은 배점(8점)을 지켰습니다.

나는 작년 논평에서 아래와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서 일부 수정해 봅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안다고 해서 다 정답을 써 낸 것은 아닐 것이고, 누구나 다 읽었을 법한 작품이라도 그것을 적중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론은 나을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 익숙한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개론서, 그리고 기출문제가 역시 중요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써 내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분명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2023학년도에도 기존의 공부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문법은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지만 문법만을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문법의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했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며 풀었다면 1년 내내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아, 여기에 올해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작년부터 학교문법의 범위를 조금 확장한 느낌입니다. 아마도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으로 채택된 것이 영향을 미친 모양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우리말문법론>과 같이 어려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와 교과서 분석이 더 도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문학은 작품을 많이 읽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제1과 제1장>을 낯설게 느꼈다던데, 요즘은 그런가 봅니다. 현대시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김춘수), <공사장 끝에>(이시영), <사슴>(노천명), 등은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현대소설의 <유예>(오상원)는 전후 실존 의식을 담은 실험작으로 임고생이라면 대부분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전시가의 <하여가>(이방원)와 <단심가>(정몽주)를 보고 ‘이렇게도 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성산별곡>(정철)은, 모든 시가 작품은 해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합니다. 고전산문의 <서대주전>은 수능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 <온달전>은 ‘열전’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모의고사에 출제했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문학 이론보다는 ‘작품’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고, 틈틈이 문학과 문학 이론을 공부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어과의 모든 영역에서 개론서의 지식을 익히고 기출문제를 더 철저하게 분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개론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니, ‘중요한 것은 나온다’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론은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한다’는 논리에 맞게 학문적 패러다임을 살피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교육과정으로 체계를 세우고, 교과서로 실제적 적용에 집중할 필요를 느낍니다.

문법은 학교문법의 체계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탐구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볼 필요를 느낍니다. 매년 기출문제에서 변형되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문법의 범위가 한정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래에 학교문법의 개론서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언어와 매체’가 수능 선택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수능식 탐구 영역이 임고에도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문법의 범위를 일부 조정해서 교과서를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래의 기조가 이렇다고 <우리말문법론> 같은 책을 아예 읽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문학은 이론에 집중하기보다는 문학사에서 중요 작품으로 인정되는 작품 중심으로 읽고, 해당 작품의 맥락적 이해를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특히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서 반복되는 작품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를 느낍니다. 고전문학 작품은 개론적 지식과 작품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현대문학은 스스로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중 선다형 문제 때의 출제 작품도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문학은 이론과 작품 읽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 년 내내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문학의 생활화’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가’와 같은 마음이 그것입니다. 공부는 새치기가 불가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마음가짐이 분명하면 정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보람 있는 결과를 선사해 줍니다. 합격은 이런 과정의 연속선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찌면 끝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앞에 겸손해야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

교수들은 교수신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 네 글자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 그러나 잘못을 고치면 더 이상 잘못이 아닌 것이 되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시험 앞에 겸손합시다.

적어도 이 글을 읽은 선생님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바라는 대로 이뤄지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2022년 12월

구동언

**다음의 글은 올해 인강으로 들은 선생님의 수강 후기입니다.  
daum cafe "전공 국어 국어향기"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임용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사범 대생이 아니라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육론, 문학, 문법까지 모두 강의하시는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 시험에 대해 전반적인 감을 잡았습니다. 교육론, 문학, 문법, 기출문제 각각에 대해 수강 후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 1. 교육론

제가 교직이수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론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 빼고는 배운 것이 없어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강의만 들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것이 많아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흥미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강의 듣고 복습만 했습니다. 교육론이 너무 막막했는데,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에 하신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육론은 나왔던 것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만 믿고 강의와 복습만 꾸준히 했습니다. 솔직히 기출문제를 풀 때 까지도 자신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풀기를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교육론은 기출문제만 5번 이상은 혼자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도 혼자 풀면서 관련 개념을 개론서를 찾아가면서 정리했습니다.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모의고사도 교육론은 3번 정도 다시 읽으면서 개념을 정리했는데, 교수님께서 모의고사에 출제된 '구두작문', '얼른쓰기'가 빈칸으로 나왔고, 작문개론서를 읽으면서 교수님이 이런 모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식 나열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개론서를 읽으면서 요즘은 인터넷 발달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한번 혼자서 열심히 읽어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한 것이 '다문서 읽기'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토의 관련해서 문제도 나왔습니다. 교육론은 교수님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 2. 문학

문학은 그래도 나름 국문학과라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정리해서 같이 공부한 문학교육론 책만 읽었습니다. 솔직히 문학은 교수님 책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다른 개론서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개론서보다 해법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해법은 4권 모두 3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EBS를 활용하라고 하셔서 매일 오전마다 해법 공부와 EBS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에 대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문학에서 교수님이 몇가지 중요한 작품을 짚어주시는데 그것도 제가 모르는 작품이면 아이패드에 담아서 개념을 정리하고 EBS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정철의 '성산별곡'과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을 유독 강조하셨는데, '성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보는 작품이라 아이패드에 담아서 5번 이상 읽고 EBS 강의도 2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공B형에 딱 나오더군요.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후소설 '비 오는 날'을 강조하셔서 EBS에서 6.25 전쟁 관련 문학을 찾아서 중요한 작품 몇가지를 정리하고 줄거리를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전공A형에 나온 오상원의 '유예'였습니다. 덕분에 문학은 나름대로 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3. 문법

제가 문법은 진짜 정말 못합니다. 학부생 때도 웬만하면 문법은 피해서 들었고, 특히 '중세국어'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유독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책이 얇아서 회독하는 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라서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론서보다 교수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문법은 교수님 책과 같이 읽은 '우리말 문법론'만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문법은 쉽게 나오는 추세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만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중세국어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모르는 상태였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웬만한 중세국어는 다 풀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교수님 책 중에서도 '중세국어'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 중세국어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도 못 알아 들어서 거의 울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습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중세국어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국어는 너무 어렵더군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중세국어의 이해'를 2회독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봤는데 눈에 너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중세국어 기초 강의는 2배속으로 3번 돌렸고, 중세국어 심화 강의는 2배속으로 2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모두 4번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중세국어 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컨대, 중세국어 어두 자음군과 관련된 문제는 교수님과 함께 풀었던 방식 그대로 나오더군요. 기출을 돌린 것이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4. 기출문제

정말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수님이 2014년 기출문제부터 혼자 풀어보라고 과제를 내주십니다. 솔직히 아직 강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기출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기출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시간이 더 지나서 교수님과 같이 기출문제를 풀 때부터 뒤늦게 기출문제를 돌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후회 되더라고요. 그냥 답을 알고 기출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제 실력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기출문제를 적어보는 것은 끝까지 놓지 말라고 하셔서 1주일에 2번, 많게는 1주일에 3번까지 풀었습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수님을 믿고 기출문제를 풀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초수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출문제는 교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풀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 5. 마지막

이번에 1차를 합격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강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수생인 저에게 이 강의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져도 내년에 꼭 합격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오히려 받았습시다. 어디 가서 기초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절대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책이 너무 좋아요. 1~2월 달에 하는 교수님의 기초 개론서와 문법 개론서는 시험치기 전날까지 읽었는데 공부를 다 끝내고 다시 읽으니까 책이 너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개론서만 몇번 읽어도 기본은 탄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수업의 장점은 직장생들의 '스터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강생이라서 스터디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하는 시간만큼 복습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항상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직장생들이 부러웠는데 그 부러움이 나름의 동기 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강후기를 읽으시는 인강생분들이 있다면 직장생분들이 스터디 하는 것만큼 더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 공부한다면 그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07. 이메일과 카페를 소개합니다.

제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kujyun@hanmail.net](mailto:kujyun@hanmail.net)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전공 국어\_국어 향기'입니다.

<http://cafe.daum.net/urinaramal>

이 카페에 들어와서 '등업 신청'을 해서 등업이 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닉네임은 본명으로 해 주세요.



## 08. 2022년 연간 강의를 안내합니다.

영역	강의 시간	
교육론	목요일	9시 30분 ~ 13시 30분
문법	목요일	14시 ~ 17시 30분
문학	금요일	9시 30분 ~ 12시 40분
		(직강-스터디) 14시 ~ 18시

### 전공 국어 구동언 2022년 강의 일정 안내

영역	과정	1-2월	3-4월	5-6월	7-8월	9월	10-11월	12월
		이론 집중 과정1	이론 집중 과정2	이론 집중 과정3	기출문제 풀이	모의고사1	모의고사2	2차 대비
교육론	국어교육의 개론적 이해 -개론서 강독	국어교육의 체계적 이해 -전영역 체계잡고 정리	국어교육의 심화 -교과서(학·독·작) 분석		영역별 기출문제 풀이 + 기출 변형 문제 풀이	모의고사 1단계	모의고사 2단계	2차 대비 -수업 실연 -심층 면접
문법	학교문법의 이해 -현대국어문법	학교문법의 심화1 -현대국어문법 -중세국어문법(기초)	학교문법의 심화2 -현대국어문법(탐구 자료) -중세국어문법(심화)					
		문학교육의 이해3 -고전문학(시가, 산문) 교과서 보기 -문학						
문학	문학교육의 이해1 -현대시	문학교육의 이해2 -현대소설						
특강		교육과정 이해						
기본 교재	구동언, <마중물 국어교육론>(22년 개정판) 구동언, <전공 국어 학교문법 탐구>(22년 개정판) 구동언, <전공 국어 기출문제 풀이집>(22년 개정판) 구동언, <마중물 문학교육>(제본책) 천재교육, <해법문학-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 기타(각종 개론서),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화법교육론>, <시교육론>, <고전산문교육론>, <고전시가교육론> 등 기타(학년별 교과서),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독서>, <문학> 등							
※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계획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